

영화 '기생충' 오스카 레이스 본격 시작

제92회 아카데미상에 외국어영화·주제가상 2개 부문 예비후보

봉준호 감독 작사·출연 배우 최우식 부른 '소주한잔'에 관심



한국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영화 '기생충' (감독 봉준호)이 오스카(아카데미상)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92회 아카데미상 2개 부문의 예비후보(ショート리스트·Shortlist)에 이름을 올렸다.

제92회 아카데미상은 17일(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후보 리스트를 발표했다. '기생충'은 총 9개 부문 중 외국어영화

페인) 등이 예비후보로 선정됐다.

특히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이 작사하고 배우 최우식이 부른 '소주한잔(A Glass of Soju)'으로 주제가상 부문에도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부문에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Speechless)'와 '겨울왕국2'의 '인투 디 언노운(Into The Unknown)', '라이온 킹'의 '스피릿(Spirit)' 등 유명 곡들도 이름을 올렸다.

예비후보는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9개 부문으로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이후 예비후보의 10개 작품 중에서 본상을 두고 겨루는 최종 후보작 5편이 내년 1월 13일 공개된다. 그밖에 쇼트리스트를 따로 공개하지 않은 부문의 최종 후보작들도 1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봉준호 감독은 '옥자'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효과 부문 예비후보에 오른 바 있으나, 본상 후보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본상 후

보가 불발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기생충'의 분위기는 다르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북미 지역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훔쓰는 등 수상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 외국어영화상 예비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내년 발표될 최종 후보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앞서 '기생충'은 미국 LA 비평가협회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송강호)을 비롯해 미국영화연구소(AFI), 전미비평가협회(National Board of Review), 애틀란타 비평가협회, 뉴욕 필름비평가온라인 어워즈(NYFCO), 시카고 영화비평가협회(CFFCA), 샌프란시스코베이 영화비평가협회 등 북미 여러 지역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

특히 '기생충'은 미국 유명 영화 시상식의 본상 후보 명단에 한국 영화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기생충'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Golden Globes Awards) 최종 후보 명단에서 감독상과 각본상 및 외국어영화상 후보에도 포함됐다.

한편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내년 2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수지, '대세' 평수와 다정한 인증샷

가수 겸 배우 수지가 EBS의 크리에이터 연습생 평수와의 만남을 인증했다.

수지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팽하 귀여워. 참치 고파워요 평수요원!"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참치 통조림을 한 손에 든 수지가 평수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수지는 이병헌 하정우 전혜진 평수가 함께 다정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평수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된 영화 '백두산'의 레드카펫 쇼케이스



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접어삼킬 조우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19일 개봉한다.

뉴스1

임윤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연기상

그룹 소녀시대 겸 배우 임윤아가 영화배우로서 처음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임윤아는 지난 16일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성과와 활발한 활동을 선보인 여성 영화인들을 조명하는 2019 여성영화인축제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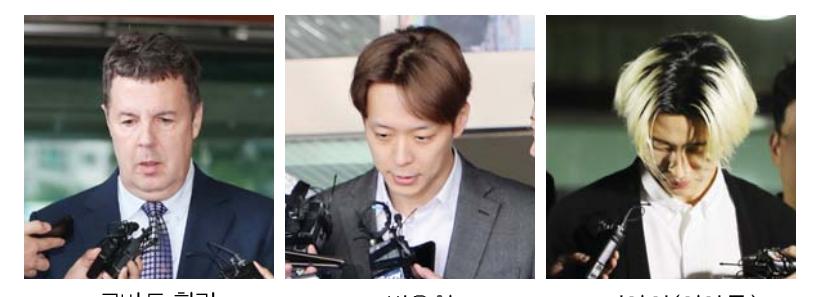
이날 임윤아는 이번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친 신인에게 수여하는 '신인연기상'을 수상, 대체 불가한 '충무로 대세'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에 임윤아는 "여성영화인축제와 3년 전 시사회로 첫 인연을 맺었었는데, 이렇게 20주년을 맞은 올해에 신인상을 받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엑시트'를 찍을 때 뛰는 장면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많



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 항상 시작하는 게 어렵고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며 한 단계씩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1



로버트 할리

박유천

비아이(아이콘)

올 한해 전 국민 분노케한

'연예계 마약사건들'

로버트 할리·박유천·황하나·비아이…양현석도 조사 받아

한때 초등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유행거리로 퍼졌던 '아이콘-사랑을 했다'를 작사·작곡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현빈)에 대한 '대마초 흡입'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아이의 등장은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A씨가 지난 6월 김씨가 과거 미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식신고하면서다.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A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는데 당시 'LSD를 구입해 달라' '마약을 살 때 도움을 받았다' 등 김씨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총 3차례의 경찰조사 중 1·2차 조사와는 달리 마지막 3차 조사 때 김씨가 미약을 확보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씨는 수사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이 김씨 마약사건 의혹과 관련해 'YG 전 담수사팀' 까지 꾸렸고 A씨가 과거 YG 측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장 분량의 내사수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참고인이었던 그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재 양현석 YG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까지 확산된 양상이다. 양씨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협박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로 총 3~4차례 조사를 받았다.

MEGABOX 광주점단점

1관 쥬먼지·넥스트 레벨

2관 시동

3관 겨울왕국2, 나이브스 아웃

4관 쥬먼지·넥스트 레벨

5관 포드 V 페라리, 갑쪽같은 그녀

6관 시동

7관 겨울왕국2

8관 겨울왕국2, 라스트 크리스마스, 블랙머니, 나를 찾아줘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압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갑쪽같은그녀, 쥬먼지·넥스트 레벨, 아내를 죽였다, 블랙머니

2관 겨울왕국2

3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아내를 죽였다

4관 쥬먼지·넥스트 레벨

5관 겨울왕국2, 쥬먼지·넥스트 레벨

6관 나이브스 아웃, 라스트 크리스마스, 러브 앤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